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2년 2월 16일(목) 08: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	자원개발전략과	전민영 과장(2110-5530), 정 권 사무관(2110-5440)
	광물자원팀	전응길 팀장(2110-5448), 김상우 사무관(2110-5435)

- '20년까지 석유·가스 자주개발률 35% 이상 달성 -

① '11년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 실적

▸ 석유·가스는 13.7%로 당초 전망 14%에 근접

▸ '11년 리튬·희토류 등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 12% 기록, 당초 전망 11% 초과, '12년 목표 12% 조기 달성

② '20년까지 석유·가스 자주개발률 35%, 전략광물 43% 목표 설정

③ 8광구 심해 시추(4월)로 제 2의 동해 가스전 발견 기대

④ 허위공시 등 투자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「광물자원개발 평가기준과 모범공시 기준」 도입

⑤ 산업연관 효과가 큰 「시추선 서비스 전문회사」 설립 추진 등 '자원개발 서비스 산업' 본격 육성

▸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 설립 추진

- 2.16(목), 대통령 주재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2월 16일(목)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「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」을 보고

○ 금번 보고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무역 2조불 시대 개막을 위해 석유·가스,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자원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1년간 중점 과제를 제시

< 현 정부 출범 후 자원개발 성과와 평가 >

□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

① 정권초기('08.6)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,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 확보 추진

②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· M&A 중심으로 전환,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

③ 중동,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

□ 이를 통해 석유·가스·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·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

① (석유·가스) '07년 4.2%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'11년 13.7%를 기록, 특히 지난 4년간('08~'11) 확보한 자주개발물량(일일 34만 배럴)이 現 정부 출범 이전 확보된 물량(일일 12.5만 배럴)의 3배 수준으로 증가

* 50년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'04년 이후 22~24%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할 때도 획기적

② (6대 전략광물) 전략광물 확보해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자주개발액은 3배('07년 39.3억불 → '11년 121억불), 자주개발률은 '07년 18.5%에서 '11년 29%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, '07년 0%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'11년 6.5%까지 확대

* 6대 전략광물 : 유연탄, 우라늄, 철광, 동, 아연, 니켈

③ (新전략광물) 리튬·희토류 등 新전략광물은 '07년 6.1%에서 '11년 12%로 약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'12년 목표(12%)를 조기에 달성

□ 정상 자원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의 프리미어리그 UAE에 진출하고 세계 3위 석유 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를 선점

① (UAE) '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'에 기반을 둔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 진출 기회를 확보

- 원유부존이 확인된 3개 미개발 유전(발견원시부존량 5.7억 배럴) 본 계약 체결 준비 중

-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협상 진행 중

② (이라크) 이라크 중앙정부 입찰에 참여하여 4개 생산·개발 광구를 확보하고 쿠르드 지역 5개 탐사광구도 선점

- 이라크의 경우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자격요건 통과가 필요하나, 자원개발 실적이 부족한 가스공사가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참여하여 낙찰기업 중 최다 광구에 진출*

* 이라크 유전 입찰 時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 생산 규모를 갖춘 기업이 참여 가능하나 가스공사는 동 자격요건이 미비(일일 생산량 9천배럴)함에도 불구하고, 중앙정부 1~3차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최다 광구(4개) 낙찰 (주바이르 생산광구, 바드라만수리아아카스 광구)

- 최근 엑슨모빌, 셸 등 메이저 석유기업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에 경쟁국보다 앞서 진출하여 5개 탐사광구 광권 획득('08.11월)

- 5개 광구는 당초 계약에 따라 탐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패여부를 판단하기 이름

* 통상 탐사계약은 5~7년 단위로 설정되며 탐사기간 종료후 재탐사, 개발 여부 등을 결정. 탐사계약 동안 의무시추 2공이 관례

* 바지안 광구는 '07~'13년간 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, '10년 1공을 시추하였고, '13년 1공을 추가 시추할 계획

□ 아프리카, 비전통 유가스전, 북극권 등 자원 프런티어 지역 진출

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자원량만 30Tcf(약6.8억톤)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 발견(추가 시추로 가스발견물량 확대 예상*)

* '11년에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로 '12년까지 총 5개 탐사정 추가시추 예정

-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지분(10%) 물량은 6,800만톤 (우리나라의 2년치 소비물량에 해당)

② 미국 이글포드 오일셰일 자산 인수('11.4월), 유망 치밀·셰일가스 생산 지역인 캐나다('10.12월), CBM(탄층가스, Coal Bed Methane) 개발 열기가 높은 호주('10.2월)에 진출

- 비전통 자원개발 확대로 전체 자주개발물량 중 생산비중이 3.4%로 상승(임기전 0%)

③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 인수('11.1월)를 통해 자원개발 영토를 북극권까지 확대

□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감안時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

① 자원부국은 대부분 정상의 의지가 사업자 선정, 사업 추진의 Key가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정상외교가 필수적임

* 중동,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경우 왕등 집권자의 결정이 사실상 法과 같은 효력

② 리스크가 높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신 회수기간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,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규모 장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

③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Catch-up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, 인력양성, 금융 인프라 조성 등 필요

< 향후 1년간 중점 추진 과제 >

□ 지식경제부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자원 확보를 위한 7개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방안을 제시

① 금년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'20년까지 이정표 제시
②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
③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
④ 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
⑤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
⑥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
⑦ 투자,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
⑧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 중심의 홍보 및 광물 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

① 금년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'20년까지 이정표 제시

□ '12년 석유·가스 20%, 6대 전략광물 32%, 리튬·희토류 등 新전략광물 13% 목표 달성으로 자원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

○ 석유·가스는 '11년 대비 일일생산량 17만배럴 추가 확보 (신규 투자 12만배럴 + 증산 5만배럴)

○ 니제르 우라늄 증산('11년 84.8톤U→'19년 399톤U),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 착수('12년 6.2천톤),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('11년 89.3천톤→'12년 1,500천톤), 브라질 나미사 철광('11년 1,800천톤→'12년 3,700천톤) 생산 확대 등

○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연간 1,500톤 확보 등

□ 아울러, '2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수준인 석유·가스 35%, 전략광물 43% 등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

○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

* 자주개발률(%, '10년) : 프랑스(105), 이태리(51), 중국(30), 일본(23), 한국(10.8%)

○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수준*까지 지속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노력이 필요

* 일본은 '30년 석유·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40% 이상으로 설정('10)

②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

□ (UAE) 3개 미개발 광구 본 계약을 3월초에 마무리하고, 개발 단계에 본격 돌입

○ 10억 배럴 이상 대형 유전 확보는 참여 광구·방식 등 협상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

□ (이라크) '13년까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를 추진하고, 쿠르드 정부와의 계약 변경 협의는 연내 마무리

* '08.11월 SOC 건설과 연계한 5개 광구의 탐사 계약에 대해 SOC 사업비 지급 방식·시기와 2개 광구의 신규 지분 매입 등 계약 변경을 협의 중

○ 기존 이라크 4개 개발·생산 광구 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를 확대하고, 4차 입찰시('12.5월 예정)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

③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

□ 「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」을 수립(상반기)하고, 그린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방안 마련, 중국(세일가스), 폴란드(세일가스), 인니·남아공(CBM) 지역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 추진

④ 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

□ 최초 심해시추(8광구)로 제 2의 동해 가스전 발견 추진

*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社 공동으로 '12. 4월부터 시추 추진

⑤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

□ (석유공사) 세계 50위권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화, 규모 확대 방안 등 「POST 3020」 전략 수립('12.상반기)

□ (광물공사)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「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」 수립('12.상반기)

⑥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

□ 시추선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 설립 추진('12년말)

□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과 해외 기업간 JV 설립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

* 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 PGN社와 CBM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('11.11), 현재 실무 협의단에서 협력사업 발굴 논의 중

⑦ 투자,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

□ (투자)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을 ('17년 3조원까지 확충 →대폭 확대 추진),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

□ (인력)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(3개 대학)로 확대, 시추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전문 인력 확보 추진

□ (기술) 『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』('11.12)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, 에너지 분야 전체 R&D의 10% 수준까지 확대

* '11년 말 현재 에너지 분야 전체 R&D의 5% 수준

⑧ 공정한 홍보·공시를 위한 제도 개선

□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

○ 자원량,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·권고하고, 과도한 홍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 평가時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

□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

○ 사업자,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(자원분류, 자원량 용어, 사업단계 표준 등)을 마련하고, 동 기준에 근거하여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(금감원)

< 향후 추진계획 >

□ 지경부는 금년도 투자계획(118억불)을 감안時 전략적 완충 수준인 석유·가스 자주개발률 20%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

○ "씨앗을 뿌려 미래의 꽃을 피우겠다"는 자세로 금번 보고한 자원개발 추진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

□ 홍석우 장관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많은 경험을 반복한 지난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

○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現 시점에서 "정부, 공기업, 민간기업이 보다 합심하여 자원강국의 미래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자"고 밝힘

○ 또한, 자동차, 반도체, 조선 산업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하고

○ 자원개발도 자본·기술·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쳐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

< 별첨 >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

참고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

1. 장기간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쳐 성공한 사례

가. 영국 북해 유전 발견

○ 영국 북해지역*은 해외 메이저社들이 장기간 끊임없는 시추를 통해 석유를 발견한 대표적인 석유개발 성공사례

* 원유 매장량 28억 배럴, 일일생산량 130만배럴 이상('10년말 기준)의 대규모 유전

<ex> BP社 영국 포티 지역 유전발견 :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탐사를 추진하여 15년간 33공을 시추한 끝에 1970년 대규모 유전발견에 성공

나. 우리나라 동해-1 가스전 개발

○ '72년 대륙붕 최초 탐사부터 '04년 생산개시까지 32년, 석유공사 탐사개시부터 16년이 소요된 고위험 장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성공

- '70년대 Shell 등 외국회사도 실패(19공 시추) 후 철수하였고 석유공사도 '80~'90년대 실패 경험(10공 시추)이 있으나, 7전8기 끝에 성공

* 동해-1 가스전 생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하였으며 생산 가스로 약 15년간('04년~'18년) 경남지역 도시가스 수요 충족

다. 베트남 15-1광구 개발

○ 15-1광구 유전은 발견확률이 0.05%에 불과한 대형유전으로 국내 기업이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국내 기술을 이용, 해외 최초 탐사 성공

- 동 지역은 '70년대 Shell, Deminex, '80년대 러시아가 탐사·시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석유·가스 발견에 실패하여 철수

- '94년 입찰 당시 석유공사, SK, Conoco社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, Shell·Amoco 등 8개 국제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 끝에 낙찰

- 사업 진행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신규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석유공사가 탐사단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

* 외환위기 기간 동안 유망광구 매각 등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은 극도로 침체

2. 기회를 잘 활용하여 순조롭게 성공한 사례

가. 예멘 마리브 유전 개발

○ '84년 석유공사, SK(당시 유공), 현대상사, 삼환기업 등 한국 기업이 지분 참여(24.5%) 하여 매장량 10억 배럴에 달하는 대형 유전 발견

- '83년 미국 독립계 석유회사인 헌트 오일이 현대상사에 당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았던 예멘 탐사 유전에 투자를 제안

- 단 한 번의 탐사시추도 없었던 예멘 마리브 유전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어 20년 동안 일일 생산량 2만5천 배럴을 한국 기업에 배당하였으며, 투자회수율은 222%에 육박

나.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 발견

○ '07년 가스공사는 당시 진출 기반이 없었던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과감히 진출하여 초대형 가스(6.8억톤, '11.10~'12.2월) 발견 성공

- '10.3월~'11.2월간 바로 옆 광구에서 미국 독립계 석유회사인 아나다코가 4공 시추로 대형 가스전(1.2억톤) 발견 후 기대감 상승

- 별도 지분 매입비 없이 탐사·시추비용 부담 형태로 참여(10%)하여 투자금액 대비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, 추가 가스 발견 예상

3.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한 사례

가. 뉴질랜드 해상 탐사 광구 철수

○ 미국 메이져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은 9.4억 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'07.7월부터 뉴질랜드 해상 광구(PEP-50117) 탄성파 탐사를 진행하였으나, 탐사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하여 '11년 철수

나. 북해 노르웨이 해상 심해 광구 철수

○ 프랑스 메이져 석유회사인 Total은 '06년 북해 해상 심해 광구에서 1공 시추를 진행(심도 4,700m)했으나, 원유 발견에 실패하여 '07년 철수